

##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 개발

김 지 연                      민 경 환                      김 민 희<sup>†</sup>

서울대학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장년 세대가 노인세대가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노인차별 연구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노인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청장년 세대와 노인세대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한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에 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tephan 등(2009)의 집단 간 위협 이론을 근거로 집단관계를 고려했을 때 청장년 세대는 노인세대로부터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척도에 포함될 적절한 문항을 선별하기 위하여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남녀 303명으로 구성된 표본A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남녀 171명으로 구성된 표본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위협 인식, 가치관 위협 인식, 경제적 위협 인식의 3요인 구조임을 확인하고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완성하였다.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가 상이한 연령 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대 집단과 30대부터 50대까지의 집단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다집단 동등성 검사를 실시했는데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척도의 전체 및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를 확인하였는데 적절한 수준이었다. 또한 타당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A와 표본B 중 20대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련 변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노인차별주의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은 관련 변인과 적절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도 노인차별주의의 변량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의미한다.

주요어 :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실질적 위협 인식, 상징적 위협 인식, 노인차별주의, 통합된 위협 이론, 집단 간 위협 이론

<sup>†</sup> 교신저자: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E-mail: pseudo@kcg.ac.kr

노인차별은 성차별, 인종차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3대 차별 중 하나이다(Nelson, 2005).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노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다(김옥, 2003; Nelson, 2005; Palmore, 2001). 노인차별적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발견된다. 사람들은 다른 연령대 사람보다 노인에 대해 더 많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노인과 대화나 만남을 하지 않으려 하고, 노인들의 가벼운 질병 증상을 노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여겨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Bowling, 2007; Hummert, 1990; Kite & Johnson, 1988; Kite, Stockdale, Whitley, & Johnson, 2005). 노인차별적 태도는 개인적으로는 노인 당사자의 자존감을 낮추고 실제 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Levy, Ashman, & Dror, 2000; Levy, Hausdoff, Hencke, & Wei, 2000; McCann & Giles, 2002; Rupp, Vodanovich, & Crede, 2005에서 재인용). 일부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자들은 동아시아는 유교 문화권이므로 노인차별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만(Cuddy, Norton, & Fiske, 2005) 비교문화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에서도 노인차별적 태도는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신홍임, 2013; Cuddy 등, 2005; Ryan, Jin, Anas, & Luh, 2004).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인식의 문제가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신홍임, 2013; 신홍임, 김민식, 2011)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차별이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으로 노인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노인차별적 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노인차별적 태도를 설명한다. 주로 노화에 대한 지식, 노화 불안, 노인과

의 접촉 경험을 노인차별적 태도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데 노화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고 노화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차별적 태도는 증가하며(김민희, 2013; 한정란, 2003), 노인과 접촉 경험이 드물고 경험의 질이 좋지 않을수록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Blusfield & Hutchison, 2010).

개인적 수준에서 노인차별적 태도의 원인을 규명하려 했던 기존 연구 흐름과 달리 최근에는 청장년 세대와 노인세대의 집단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인차별적 태도를 설명하려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North와 Fiske(2012)로 이들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긴장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한정된 자원의 소비 영역, 질 높은 자원에 대한 접근 영역, 정체성 영역에서 노인세대와 갈등을 경험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이 한정된 자원을 독식하고, 필수 자원을 적절한 시기에 이양하지 않고, 젊은 사람끼리 향유하는 문화에 침범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노인차별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로 인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나 젊은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방해받는다라고 인식할 때 노인차별적 태도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노인 연구 영역에서는 청장년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갈등적 속성으로부터 노인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관점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집단 간 태도 연구 영역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집단 갈등적 속성을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차별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왔다.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집단 갈등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한 이론의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적 갈등 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Sherif & Sherif, 1966; Yzerbyt & Dmoulin, 2010에서 재인용)은 두 집단이 돈, 권력, 명망과 같이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할 때, 외집단의 자원 획득은 내집단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집단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사회 기능적 이론(Social Functional Approach)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기원을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녀 양육, 먹이 찾기와 같이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행동을 집단 생활(group-living)에 의존하는 상호의존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생활 체계에 해가 되는 구성원에게 부정적 감정을 형성함으로써 효과적인 집단 생활을 유지한다.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염병을 퍼트리거나 소위 무임승차를 하는 개인 혹은 집단에게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원활한 집단생활 유지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심리적 매커니즘을 진화적으로 발달시켜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Cottrell & Neuberg, 2005). 정리하면 현실적 갈등 이론이나 사회 기능적 이론에서는 외집단으로 인하여 돈, 권력과 같은 희소한 자원이나 생존과 재생산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방해받는다고 인식할 때 사람들은 외집단에 대해 차별적 태도를 형성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자원을 둘러싼 갈등만이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가치관, 신념과 같은 의미 체계를 둘러싼 갈등 역시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론이 상징적 인종차별주의(Symbolic racism) 이론이다(Kinder & Sears, 1981; Riek, Mania, & Gaetner, 2006에서 재인용). 상징적 인종차별주의는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적대감인 전통적인 인종차별주의와 다르다. 상징적 인종차별주의자는 다른 인종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로 인하여 미국의 전통적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 상대 인종에 대하여 적대감과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Nelson, 2002; Riek 등, 2006).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외집단으로 인해 실질적 자원으로서의 접근이 위협

받고 있다는 인식이 중요한지 아니면 외집단으로 인해 의미 체계의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였다. 그러다가 이 두 종류의 위협 인식이 서로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타났다(Riek 등, 2006). 이러한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연구자는 Stephan과 Stephan(2004)이다. 이들은 통합된 위협모형(integrated threat theory)에서 실질적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의미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모두 외집단에 대한 태도 형성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모형은 이후 집단 간 위협 이론(intergroup threat theory)으로 발전하게 된다(Stephan, Ybarra, & Morrison, 2009). 이 이론에서는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을 ‘사람들이 외집단에 의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 해를 입는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며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의 2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실질적 위협 인식은 외집단으로 인해 권력, 자원, 전반적인 복지의 획득 혹은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고 상징적 위협 인식은 외집단으로 인해 종교, 가치, 이데올로기, 철학, 세계관의 유지 혹은 존중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다(Stephan 등, 2009). Stephan은 두 가지 위협 인식이 다양한 집단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델이라고 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수의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Berrenberg, Finlay, Stephan, & Stephan, 2002).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백인 학생들은 아시아계 학생이 백인 학생의 교육 및 취업기회 획득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면, 즉 실질적 위협을 인식하면 아시아계 학생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졌다(Maddux, Galinsky, Cuddy, & Polifroni, 2008). 또한 한 연구에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남성이 여성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아 여성의 권위와 사회적 기회 획득에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때 여성은 남성에 대해 더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였다(Stephan, Demitakis, Yamada, & Clason,

2000). 한편 Riek 등(2006)은 위협 인식과 부정적 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9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외집단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이론을 근거로 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외집단을 대상으로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검증하였으나 아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 현상 및 노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이 노인차별적 태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Abrams, Russell, Vaclair, & Swift, 2011).

첫째,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이 위협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세대 간 자원 배분에 관하여 일종의 암묵적 계약을 맺고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 가능 세대가 근로가 힘든 아동과 노인을 부양하고, 현재의 근로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의 아동세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자원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신창환, 2009).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인구는 점차 늘어나지만 이들을 부양할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의 부양인구는 세대 간 자원 분배에 관한 기존의 계약에 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근로 가능 세대인 청장년 세대는 노인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기여한만큼 나중에 자신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혜택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신들과 달리 기여 대비 보상을 많이 받고 있는 노인세대에게 위협을 느낄 가능성, 즉 노인으로 인하여 소위 '내 몫'으로 돌아올 자원이 부족하다는 위협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점점 오르는데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수령할 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관해 청장년 세대의 불만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서울신문, 2014. 8. 7), 이러한 우려는 노인세대로 인해 실질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방해받는다라는 인식, 즉 노인세대에게 갖는 실질적 위협 인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노인이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정치 참여 동기가 높아진다(박재간, 이인수, 2001). 이러한 노인의 높아진 정치 참여 동기는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더해져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투표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 1991년에 이미 전체 투표율이 60% 정도였는데 비해 노년층 투표율은 68.8%에 달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8대 대선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투표율이 75.8%였던 것에 반해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80.9%였다(박재간 등, 2001; 경향신문 2013. 02. 15). 특히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인 젊은 세대는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인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위협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장년은 어떨까? 정치 성향만을 두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장년, 특히 50대는 노년과 같은 정치 성향을 보이며 18대 대선에서는 50대가 60대 이상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년 역시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철에 노인세대는 강력한 이익단체로서 자신들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정치권이 노년층 유권자의 표를 끌어오기 위하여 선심성 공약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장년세대는 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예산의 많은 부분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 및 예산이 세대 간에 불균형하게 배분된다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 내 전체 노인의 절반 이상이 속해 있는 노인 대표단체인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는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큰 이익단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박재간 등, 2001; Binstock, 2010), 이 단체는 2008년에 만 59만 달러를 공공정책 연구자금 및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정치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Binstock, 2010).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AARP 규모의 노인 이익단체는 없으나 정치권이 노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년층에게 유리하도록 예산을 분배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다(서울경제 2014. 3. 19; 서울신문 2014. 8. 7).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년층 역시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여성정책개발원(2010)은 노인세대,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를 구분하고 세대별로 가족주의, 공경사상, 직업 의식 등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조사하였는데 노인세대와 손자녀 세대, 그리고 노인세대와 자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다고 곧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상대 집단과 내가 속한 집단의 가치관 차이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상대 집단에 대해 상징적 위협 인식을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Stephan 등, 2004; 2009).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인세대는 연령에 따른 권위를 인정하는 수직적 권위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기 때문에(박재홍; 2010) 청장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나 가치를 노인세대가 권위를 내세워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박경숙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젊은 사람일수록 자신과 관련없는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가 연장자라는 이유로 노인에게 순종하고 존경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장년 세대는 존경과 순종을 받기 원하는 노인세대에게 위협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전술한 이유들로 청장년 세대는 노인세대가 자신들에게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가능

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 자원이나 정치권력과 같은 실질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노인세대에게 방해받는다 인식인 실질적 위협 인식이고, 두 번째는 중요시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노인세대에게 의해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인 상징적 위협 인식이다.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과 다른 변인간의 관계는 외집단 위협에 대한 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로부터 추론해볼 수 있다. 먼저, 노인세대를 위협적으로 인식할수록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외집단 위협에 대한 인식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집단을 위협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외집단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다(Cottrell 등, 2005; Rieck 등, 2006; Stephan 등, 2004, 2009). 예를 들어 Stephan 등(2004)은 인종 간 태도 연구에서 백인에게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위협 인식 및 가족관과 같은 가치관 측면에서의 상징적 위협 인식을 강하게 하는 흑인일수록 백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마찬가지로 흑인에게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위협 인식 및 가족관과 같은 가치관 측면에서의 상징적 위협 인식을 강하게 하는 백인일수록 흑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외집단 위협에 대한 인식 연구결과로부터 미루어볼 때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노인세대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노인과 대화하거나 만나려는 의도인 노인과 접촉 의도가 낮을 수 있다. 위협 인식과 접촉 의도의 관계는 위협 인식과 태도와의 관계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몇몇 선행연구 결과(예, Gaunt, 2011; Johnson, Ashburn-Nardo, Spicer, & Dovidio, 2008)로 미루어볼 때 두 변인은 서로 부적인 관계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단 간 갈등

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상대 민족 구성원과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Gaunt, 2011). 위협 인식은 자원이나 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외집단 위협에 대한 인식과 접촉 의도는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역시 노인에 대한 접촉 의도와 부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은 노인차별적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라 예상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로 노인과의 접촉 경험의 질과 빈도 혹은 노화에 대한 지식 수준이 중요하다고 본다(한정란, 2003; Aday, Sims, & Evans, 1991; Fraboni 등, 1990). 그러나 외집단 위협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로 미루어볼 때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역시 노인차별적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개념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외집단 위협에 대한 인식은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Pereira, Vala와 Costa-Lopes(2010)는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이 높으면 이주민의 이민 혹은 귀화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Renfro, Duran, Stepan과 Clason(2006)에 의하면 소수민족에게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심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도 있는데 Cary, Chasteen과 Cadieux(2013)에 따르면 노인에 의해 긍정적 자기정체감 유지가 위협받는 상황의 사람이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로 미루어볼 때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및 노인을 회피하고 싶은 소망과 적대적인 차별의도, 즉 노인차별적 태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위협 인식은 차별적 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노인차별적 태도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므로 실제로 사람들이 노인세대를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집단 갈등적 측면에서 청장년 세대가 노인세대에게 가질 수 있는 인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역시 개발된 것이 별로 없다. North와 Fiske(2013)가 개발한 Succession, Identity, Consumption(SIC) 척도는 자원 소비, 자원 이양, 문화 향유 측면에서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에게 가지는 인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구체적으로 SIC는 노인은 한정된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면 안되고, 자원 이양을 미루면 안되고, 젊은 사람의 문화에 침투하면 안된다는 인식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자원 소비, 자원 이양에 대한 인식은 실질적 위협 인식과 관련되고, 문화 향유에 대한 인식은 상징적 위협 인식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협 인식을 SIC로 측정하는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나이 든 근로자는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길을 비켜줘야 할 때가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한다’, ‘나이 든 근로자의 승진도 경력보다는 능력으로 결정해야 한다’와 같이 집단으로서의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데 부적절한 문항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탈권위적 성향의 젊은 세대와 권위적 문화에 익숙한 노인세대 간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박경숙 등, 2013), 이것이 상징적 위협 인식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SIC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세대에게 가지는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새로 개발하고자 한다.

##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303명의 표본 A와 171명의 표본 B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 A는 여성 197명, 남성 105명이고 평균 연령은 34.95세( $SD=13.52$ )이며 표본 B는 여성 99명, 남성 70명이고 평균 연령은 35.85세( $SD=15.16$ )이다. 연령대별 수는 표본 A는 20대 133명, 30대 40명, 50대 63명, 50대 66명이었으며, 표본 B는 20대 84명, 30대 9명, 40대 33명, 50대 44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 소재의 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전업주부,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연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진행되었는데 오프라인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참여하였고, 온라인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연구의 목적이 기술된 연구 안내서를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참여하였다. 표본 A 중 70명은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표본 A의 응답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고 표본 B의 응답은 확인적 요인분석 및 다집단 동등성 검증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수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Fabrigar, Wegner, MacCallum과 Strahan(1999)에 따르면 요인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측정변수 수의 5~10배가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측정 변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표본 A와 표본 B의 수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표본 A와 B 중 대학생인 20대 200명은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질문지와 타당도 변인 및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에 모두 응답하였으므로 이들의 자료는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의 타당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관계 확인을 위한 분석에 활용되었다.

문항 개발

Stephan 등(2009)의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

적 위협 인식의 정의를 기초로 연구자가 청장년이 노인세대에게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이 무엇인지 각각 정의한 후, 정의에 맞도록 문항을 개발하였다. North 등(2013)이 만든 척도와 고령화 사회,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차별과 노인문제에 관한 문헌<sup>1)</sup>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질적 위협 인식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15개, 상징적 위협 인식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14개, 총 29개의 문항을 만들었다<sup>2)</sup>. 우선 29개의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sup>3)</sup>가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여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지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8개 문항, 문항 내용 상 해당 개념을 측정하기에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청년과 장년에게 모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5개 문항, 다른 문항과 내용이

- 1) North 등(2012)의 척도 중 자원 이양, 자원 소비 요인의 문항은 노인에 대한 실질적 위협 인식과 관련있고, 정체성 요인의 문항은 노인에 대한 상징적 위협 인식과 관련있으므로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 제작 시 참고하였다. 한편, 고령화 사회,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차별과 노인문제에 관한 문헌에는 청장년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대 간 관계적 측면은 청장년 세대가 노인세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문항 제작 시 참고하였다. 예를 들어 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다룬 문헌(Peterson, 2000/2002)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가 청장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두 세대 간의 관계는 청장년 세대로 하여금 노인세대가 한정된 자금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생각, 즉 노인세대에게 실질적 위협 인식을 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 제작을 위해 대표적으로 참고한 문헌은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Peterson, G., 2000/2002), <노년에 인생의 길을 묻다: 노년과 나이들에 대한 여덟 가지 시선>(어르신사랑모임, 2009)이다.
- 2) 문항의 예로는 ‘노인세대가 지키려는 것은 대부분 전통이라기 보다는 인습에 가깝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후손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린다’, ‘노인세대가 좀 더 일찍 은퇴했다면 우리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덜 심각했을 것이다’ 등이 있다.
- 3) 노인차별과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를 5편 이상 수행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심리학과 교수 2인

중복되는 1개 문항, 총 14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남은 15개 문항의 내용이 노인세대에게 가지는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을 측정하는데 적절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하여 의집단 위협에 대한 인식 개념을 잘 알고 있는 대학원생 6명에게 문항의 적합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노인세대에 대한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의 정의를 보고, 각 문항이 두 종류의 위협 인식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지 선택하고, 각 문항이 해당 위협 인식을 측정하는데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5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결과, 모든 문항이 가정대로 정확히 분류되었으며, 각 문항의 평균 적합도 점수는 모두 3점을 초과하여 모든 문항이 해당 개념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문항의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판단 과정 및 대학원생 적합도 평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1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에 대해서는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 측정 도구

##### 노인차별주의

Fraboni 등(1990)이 개발한 노인차별주의 척도(Fraboni Scale of Ageism; FSA)를 김지연 등(201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FSA는 노인차별의 다차원적 측면(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정서, 부정적 행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노인차별적 태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김지연 등, 2012). 한국판 FSA는 정서적 회피, 차별, 고정관념의 세 개 하위요인의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4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주의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판 타당화 당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83이었다.

#####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2가지 도구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사용한 도구는 Sa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1984)이 개발한 의미분화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를 한정란(2003)이 번안한 척도이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을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해석되도록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두 번째 사용한 도구는 단일 문항으로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세대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점(매우 안좋아한다)부터 5점(매우 좋아한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Maddux 등(2008)이 타인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항을 노인에 대한 태도 측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노화에 대한 지식

Palmore(1988)의 Facts on Aging quiz I(FAQ I)과 Facts on Aging quiz II(FAQ II)를 바탕으로 한정란(2000)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새로 개발한 한국판 노화에 대한 지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Palmore가 개발한 FAQ I 중 15개 문항과 FAQ II 중 6개 문항, 윤진과 조석미(1982)가 개발한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 중 2개 문항 그리고 연구자가 새롭게 추가한 문항 2개의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맞다(O), 틀리다(X), 잘 모르겠다(?)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했으며, 맞는 답을 한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틀린 답을 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은 모두 오답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접촉의 질

Hutchison, Fox, Laas, Matharu와 Urzi(2010)이 사용한 노인 접촉 척도를 김지연 등(201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3문항은 노인과의 접촉 빈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 3문항은 노인과의 접촉의 질과 관련된 내용이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과 자주 그리고 긍정적인 접촉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사회적 바람직성

Paulhus(1998)이 개발한 BIDR(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척도를 정보라(2005)가 타당화한 척도 중 자기 기만 긍정성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 기만 척도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정보라, 2005). 각 문항을 읽고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기만적인 응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57이었다. Cronbach's  $\alpha$  값이 약간 낮은 수준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Li와 Bagger(2007)에 의하면 자기기만 척도를 사용한 연구의 50% 이상에서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7 이하의 값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는 문항이 다양한 자기 방어와 자기 고양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받아들일만한 수준이라고 보여진다.

### 노인과의 접촉 의도

Hutchison 등(2010)이 사용한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1점부터(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7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노인과 접촉하거나 대화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절차

본 연구에서는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우선 노인세대에 대한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을 정의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 다음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척도에 포함될 적절한 문항을 선별한 후 다른 표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세 번째로 척도가 상이한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척도 및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를 확인하고,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변인인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과의 접촉 의도와의 상관을 살펴보는 한편 노인차별주의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다른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노인차별적 태도를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의 요인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15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고, 요인 간 상관이 가정되므로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사용하여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은 가정한 요인수가 적합한지 가설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료가 정규성을 따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요인추출 방법이다(Fabrigar 등, 1999). 따라서 우선 자료가 정규성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왜도는 -.358~.332, 첨도는 -.943~.362의 값을 가져 전반적으로 비정규성(nonnormality)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Fabrigar 등, 1999).

연구자가 가정한 요인수는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의 2개 요인이었지만 연구자의 가정과 다른 요인수가 더 적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인수는 최종적으로 스크리 검사, 적합도 지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스크리 검사는 많은 연구자들이 요인 수의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1개부터 요인을 차례로 추출하여 각 요인의 고유값을 도표로 그린 후 도표 상에서 고유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점을 바탕으로 요인 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정송, 이숙목, 이영선, 이민수, 2011). 적합도 지수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할 때 요인수 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Fabrigar 등, 1999).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면 가정한 요인수를 통해 추정된 공분산 행렬과 표본 공분산 행렬이 일치하는지  $\chi^2$ 검증을 할 수 있다. 만약 검증 결과가 유의하면 가정한 요인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그런데  $\chi^2$ 검증은 표본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영가설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할 때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TLI나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사용한다(Browne & Cudeck, 1993). 해석 가능성의 고려는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 해당 요인을 잘 설명하는지 외관타당도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요인 수 결정 절차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이순목, 1995; Farmer & Aman, 2009).

우선 15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로 스크리 도표를 그려보았다. 결과, 4번째 요인부터 고유값이 평준화되므로 요인수는 3개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두 번째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 수를 2개부터 4개까지 지정하여 분석하고 각 분석결과의 RMSEA 값을 검토하였다. 결과, 2요인으로 가정하였을 때 .138, 3요인으로 가정했을 때는 .072, 4요인으로 가정했을 때는 .052의 값을 가져 Browne와 Cudeck(1993)이 제시한 근거에 비추었을 때 2요인은 적합하지 않지만 3요인과 4요인은 모두 가능한 요인구조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3요인과 4요인을 가정한 후 각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 내용을 살펴보았다. 결과, 3요인 해가 4요인 해보다 해석 가능성이 높고, 각 요인에 속하는 요인수도 적절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3요인 구조가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에 적합한 구조라고 판단하였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을 선택하기 위하여 공통성이 .40 이상이고, 한 요인에 대해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인 문항을 좋은 문항이라고 간주하였고, 두 요인 이상에 .5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은 교차부하되는 문항이라고 판단하였다(Hale-Smith, Park, & Edmondson, 2012). 그 결과, '현재의 노인세대는 후손들을 배려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노인세대는 종종 우리세대의 윤리의식을 비판한다' 등 5문항이 삭제되었고, 요인1에는 3개 문항, 요인2에는 4개 문항, 요인3에는 3개 문항이 남았다. 이렇게 남은 10개 문항은 계량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요인별 문항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요인보다 문항수가 많은 요인2의 문항에서 요인부하량이 가장 낮은 문항 1개를 삭제하였다(Wong, Kim, Nguyen, Cheng, & Saw, 2014; Saarikallio, 2012).

최종적으로 요인1은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

력은 필요 이상으로 높다’,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위협적이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요인2는 ‘노인세대는 우리 세대의 의견을 무시한다’, ‘노인세대는 우리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요인3은 ‘노인세대의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이 저하되었다.’, ‘노인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에 세금이 과도하게 쓰인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1은 노인세대로 인해 내가 속한 연령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인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치적 위협 인식’으로 명명하였고, 요인2는 노인세대로 인해 내가 속한 연령집단의 가치관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과 관

표 1.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의 요인구조(패턴행렬)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1	2	3
<b>요인1: 정치적 위협 인식</b>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필요 이상으로 높다	.966	-.026	-.033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위협적이다	.932	-.063	-.001
노인세대는 우리 세대에 비해 불공평할 정도로 많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	.795	.052	-.013
<b>요인2: 가치관 위협 인식</b>			
노인세대는 우리 세대의 의견을 무시한다	-.089	.966	.020
노인세대는 우리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094	.932	.023
노인세대는 우리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020	.776	.021
<b>요인3: 경제적 위협 인식</b>			
노인세대의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이 저하되었다	.021	-.106	.790
노인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에 세금이 과도하게 쓰인다	-.049	-.066	.720
노인세대의 지하철 무료 이용 정책은 우리 세대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059	.096	.670

표 2.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전체척도 및 하위척도 간 상관, 평균(표준편차), 내적신뢰도

	정치적 위협 인식	가치관 위협 인식	경제적 위협 인식	M(SD)	Cronbach' $\alpha$
정치적 위협 인식	1			4.18(1.48)	.91
가치관 위협 인식	.531**	1		3.97(1.15)	.89
경제적 위협 인식	.250**	.243**	1	3.45(1.19)	.74
전체	.830**	.772**	.640**	3.86(.96)	.83

N=303, \* $p < .05$ , \*\* $p < .01$ .

런되므로 ‘가치관 위협 인식’으로 명명하였고, 요인3은 노인세대로 인해 내가 속한 연령 집단 몫의 경제적 자원이 작아진다는 인식과 관련되므로 ‘경제적 위협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인 패턴행렬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의 전체 평균은 3.86(.96)이며 요인별로는 요인1의 평균은 4.18(1.48), 요인2의 평균은 3.97(1.15), 요인3의 평균은 3.45(1.19)이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3이고, 요인별 내적합치도는 요인1이 .91, 요인2가 .89, 요인3이 .74이다. 전체 척도 및 요인별 평균(표준편차), Cronbach'a 및 요인 간 상관 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얻은 3요인 구조의 교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한 표본과는 다른 표본(표본 B)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모형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니  $\chi^2(24)=25.552$ , RMSEA=.020, CFI=.998, TLI=.997로 모형 적합도가 좋은 수준이었다. 연구설계 단계에서 연구자가 가정한 요인구조는 2요인 구조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2요인 구조보다 3요인 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3요인 모형뿐만 아니라 몇 가지 경쟁모형의 모형적합도를 같이 확인

하여 3요인 구조가 일관되게 다른 요인구조에 비해서 더 좋은 모형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형경쟁을 위해 총 3개 경쟁모형을 상정하였다. 요인1(정치적 위협 인식)과 요인3(경제적 위협 인식)을 한 요인으로 보고 요인2(가치관 위협 인식)를 다른 요인으로 본 2요인 모형A, 요인1과 요인2를 한 요인으로 보고 요인3을 다른 요인으로 본 2요인 모형B. 요인 3개가 모두 한 요인이라고 본 1요인 모형을 각각 3요인 구조와 비교하였다. 결과, 3요인 모형이 나머지 모형보다 CFI, RMSEA, TLI 모두 더 좋은 적합도를 보여 3요인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이라고 결론지었다.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집단 동등성 검증

비록 노인에 대한 위협 인식 척도가 20대부터 50대까지의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척도의 3요인 구조가 서로 다른 연령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집단 동등성 검증은 집단 간 요인구조가 동일한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의 가정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배병렬, 2007).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가정은 동시에 검증되지 않으며 순차적으로 검증하게 되는데 만약 이전 단계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가정 검증을 진행할 수 없다(배병렬, 2007).

표 3.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a)	25.552	24	.997	.998	.020
(b)	208.700	26	.699	.782	.203
(c)	238.322	26	.650	.747	.219
(d)	395.08	27	.415	.562	.283

주.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각 모형은 (a) 연구 모형, (b) 2요인 모형A, (c) 2요인 모형B, (d) 1요인 모형.

형태동일성 가정은 집단별 요인구조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모든 모수에 대하여 집단 간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동시에 분석하여 양호한 적합도를 얻으면 형태동일성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척도의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해당 검사가 집단별로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한소영, 신희철, 2007). 형태동일성 가정 모형은 다른 모형과 비교할 때 기준이 된다(배병렬, 2007). 형태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면 측정동일성 가정을 검증할 수 있다. 측정동일성 가정은 집단별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며 가정이 충족되었다는 것은 척도의 각 측정변인이 집단에 걸쳐 같은 요인을 측정함을 의미한다(한소영 등, 2007). 절편동일성 가정은 집단에 걸쳐 측정변수의 절편이 동일하다는 가정이며 가정이 충족되면 집단에 관계없이 한 잠재변인에 대해 같은 값을 가지는 피험자들은 그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인에서도 같은 값을 가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집단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대부분 대학생 집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0대와 30대~50대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다집단 동등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두 집단 간 어떤 모수제약도 하지 않은 채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다(모형1: 기저모형). 결과,  $\chi^2(48) = 60.462$ , TLI .979, CFI .986, RMSEA .039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여 형태동일성 가정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측정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두

연령 집단의 요인계수가 같다는 제약을 하고 요인분석을 하여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다(모형2). 결과,  $\chi^2(54) = 63.425$ , TLI=.986, CFI=.989, RMSEA=.032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가정모형의  $\chi^2$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두 모형의  $\chi^2$  차이값은 2.963, 자유도 차이값은 6으로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측정동일성 가정은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절편동일성 가정을 검증하였다. 모형2에 더하여 두 연령 집단에 걸쳐 측정변수의 절편도 각각 동일하다는 제약을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모형3). 결과,  $\chi^2(60) = 73.443$ , TLI=.981, CFI=.985, RMSEA=.037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모형2와의  $\chi^2$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두 모형의  $\chi^2$  차이값은 10.018, 자유도 차이값은 6으로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절편동일성 가정 역시 충족되었다. 형태동일성 가정모형, 측정동일성 가정모형, 절편동일성 가정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공존타당도, 증분타당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관계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던 표본 중 위협 인식과 관련된 변인 및 사회적 바람직성 검사도 실시한 20대 표본만을 대상으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점수와 관련 변인들의 점수를 상관분석하였다.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전체 점수 및 각 하위요인 점수는 Sanders 등(1984)의 척도로 측정된

표 4. 연령집단에 따른 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TLI	CFI	RMSEA
모형1(기저모형)	60.462	48	.979	.986	.039
모형2	63.425	54	.986	.989	.032
모형3	73.443	60	.981	.985	.037

주. 모형1: 형태동일성 가정 모형, 모형2: 측정동일성 가정 모형, 모형3: 절편동일성 가정 모형.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전체 :  $r=-.540, p<.01$ , 정치적 위협 인식:  $r=-.267, p<.01$ , 가치관 위협 인식 :  $r=-.498, p<.01$ , 경제적 위협 인식 :  $r=-.460, p<.01$ ),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태도 점수와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전체 :  $r=-.362, p<.01$ , 정치적 위협 인식:  $r=-.228, p<.01$ , 가치관 위협 인식 :  $r=-.354, p<.01$ , 경제적 위협 인식 :  $r=-.226, p<.01$ ), 노인과의 접촉 의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전체 :  $r=-.412, p<.01$ , 정치적 위협 인식:  $r=-.223, p<.01$ , 가치관 위협 인식 :  $r=-.393, p<.01$ , 경제적 위협 인식 :  $r=-.317, p<.01$ ).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은 가치관 위협 인식 요인이  $r=.141, p<.05$ 로 어느 정도 유의한 관계가 있었지만 전체 척도 및 나머지 요인과는

유의하지 않았다(전체 :  $r=.058, p>.05$ , 정치적 위협 인식:  $r=.083, p>.05$ , 경제적 위협 인식 :  $r=-.105, p>.05$ ).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과 타당도 변인 및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과 노화에 대한 지식이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고 있다(한정란, 2000; Bousfield 등, 2010; Frabnoi 등, 1990; Pettigrew & Troop; 2006).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나 노화에 대한 지식 외에도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역시 노인차별주의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표 5.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과 관련 변인 간의 상관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전체)	정치적 위협 인식	가치관 위협 인식	경제적 위협 인식
노인에 대한 태도A	-.540**	-.267**	-.498**	-.460**
노인에 대한 태도B	-.362**	-.228**	-.354**	-.226**
노인과의 접촉 의도	-.412**	-.223**	-.393**	-.317**
사회적 바람직성	.058	-.083	.141*	-.105

N=200, \* $p<.05$ , \*\* $p<.01$ . 주. 노인에 대한 태도A: Sanders 등(1984)의 척도로 측정, 노인에 대한 태도B: 단일문항으로 측정.

표 6. 노인차별주의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예언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단계 1			.260		34.556***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경험	-.131	-.480***			
노화에 대한 지식	-.024	-.167**			
단계 2			.444	.184***	52.087***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경험	-.104	-.380***			
노화에 대한 지식	-.014	-.099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161	.446***			

\*\* $p<.01$ , \*\*\* $p<.001$

표 7.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N=200)

	평균	표준편차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전체)	3.84	1.00
노인차별주의	2.19	.36
노인에 대한 태도A	4.28	.66
노인에 대한 태도B	2.91	.66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	3.83	1.33
노화에 대한 지식	13.02	2.54
노인접촉 의도	4.57	1.35

주. 노인에 대한 태도A: Sanders 등(1984)의 척도로 측정, 노인에 대한 태도B: 단일문항으로 측정.

으로 단계1에서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과 노화에 대한 지식을 예측변인으로 두었고, 단계 2에서는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이 노인차별주의에 얼마만큼의 증분 설명량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결과, 단계1의 회귀모형은 노인차별주의 변량의 26.0%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단계2의 회귀모형은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노인차별주의 변량의 18.4%를 추가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Delta R^2=18.4, p<.001$ ).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위협 인식 점수 평균은 3.84( $SD=1.00$ ), 노인차별주의 점수 평균은 2.19( $SD=.36$ ), Sanders 등(1984)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점수 평균은 4.28( $SD=.66$ ),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점수평균은 2.91( $SD=.66$ ),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의 점수 평균은 3.83( $SD=1.33$ ), 노화에 대한 지식 점수 평균은 13.02( $SD=2.54$ ), 노인과의 접촉 의도의 점수 평균은 4.57( $SD=1.35$ )이었다.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청장년 세대가 노인세대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Stephan 등(2009)의 집단 간 위협 이론을 근거로 청장년 세대는 노인세대에게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의 2가지 차원의 위협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문항은 먼저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헌과 집단 갈등적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기존 척도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1차적으로 문항 내용이 해당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판단 과정 및 대학원생의 적합도 평정 과정을 거쳐 15개 문항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노인에 대한 위협 인식이 3요인 구조라는 점을 확인했다. 교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표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경쟁모형과 비교하여 3요인 모형이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가 서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척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동등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대 연구참여자로 부터 얻은 자료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 및 회귀분석을 하여 공준타당도와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고, 개발한 척도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의 3가지 하위차원은 각각 정치적 위협 인식, 경제적 위협 인식, 가치관 위협 인식이다. 각 하위차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 위협 인식은 노인세대로 인해 내가 속한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인식, 경제적 위협 인식은 노인세대로 인하여 내가 속한 세대가 경제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받지 못하

고 있다는 인식, 가치관 위협 인식은 노인세대로 인하여 내가 속한 세대가 중시하는 가치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얻어진 3요인 구조가 다른 표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정치적 위협 인식과 경제적 위협 인식을 하나의 요인으로 두고 가치관 위협 인식을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둔 2요인 구조A, 정치적 위협 인식과 가치관 위협을 하나의 요인으로 두고 경제적 위협 인식을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둔 2요인 구조B, 그리고 3종류의 위협 인식이 사실은 하나의 동일한 개념의 위협 인식이라 가정한 1요인 구조를 3요인 구조와 비교하였는데 3요인 구조모형이 다른 경쟁모형보다 모형적합도 지수가 더 좋아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은 3요인 구조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이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애초에 연구자가 연구설계 단계에서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다. 연구설계 단계에서는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이 실질적 위협 인식과 상징적 위협 인식의 2요인 구조일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연구결과는 2요인 구조보다 정치적 위협 인식, 가치관 위협 인식, 경제적 위협 인식의 3요인 구조가 더 적합한 구조라고 나왔다. 그런데 3요인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연구자가 실질적 위협 인식이라고 가정했던 내용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위협 인식과 경제적 위협 인식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Stephan 등 (2009)은 정치 권력 및 경제적 자원은 모두 실질적 자원이므로 두 자원의 획득과 유지가 어렵다는 위협 인식은 모두 실질적 위협 인식이라는 동일개념으로 묶일 것이라고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위협 인식은 서로 상관은 있으나 구분되는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상과 달리 정치적 위협 인식과 경제적 위협 인식이 구분되는 개념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치적 위협 인식이 실질적 위협 인식과 완

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다. 정치적 위협 인식은 실질적 자원 획득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가치관 인정과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한 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구현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위협 인식은 한편으로는 실질적 자원 획득이 방해받고 있다는 인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시하는 가치관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노인세대에게 가지는 정치적 위협 인식 역시 실질적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가치관을 둘러싼 갈등 모두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사람들은 노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력히 결집된 정치적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박재간 등, 2001).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노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한다고 보고 이들을 ‘탐욕스러운 노인’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이익추구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질 수 있다(박재간 등, 2001; 한정란, 김귀자, 2003; 신창환; 2009).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청장년 세대는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한 예로 18대 대선에 보수정당 후보 지지율은 20대가 31% 였던데 반해 60대 이상은 68.8%였다(경향신문 2012. 12. 20). 사람들은 노동, 환경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과 최대한 가까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한다.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을 사회 내에서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은 보수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은 노인세대가 자신의 가치

관 실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치적 위협 인식과 경제적 위협 인식 간의 상관은 .250이고, 정치적 위협 인식과 가치관 위협 인식 간의 상관은 .531이었는데 이러한 상관 값은 정치적 위협 인식이 경제적 위협 인식과 구분되는 개념이며 오히려 가치관 위협 인식과 유사한 부분이 더 많은 개념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3가지 하위차원으로 나뉜다는 점은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나 최근 사회 현상에서 관찰되는 바와 일치한다. 먼저, 청장년 세대는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노인세대의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노인세대의 정치성향은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노인세대와 다른 정치성향을 가진 젊은 세대는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한편, 노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면 정치권은 노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노년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텐데 이로 인해 청장년 세대는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노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하는 관점이 존재한다(서울경제 2014. 3. 19). 실제로 노인 유권자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적 행동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나 언론 보도로 미루어볼 때 청장년 세대가 노인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청장년 세대는 가치관 측면에서 노인세대에게 위협을 인식할 수 있다. 박경숙 등(2013)에 따르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세대갈등은 주로 권위주의-탈권위주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노인세대는 연령에 따라 권위가 부여되는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순종과 존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는 권위주의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으므로 노인세대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는 노인세대가 자신의 생각, 의견,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인세대를 위협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청장년 세대는 경제적 자원 배분 측면에서 노인세대에게 위협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 인식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인식이다. European Social Survey (Abrams 등, 2011)에서는 유럽인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면서 사람들이 70세 이상인 노인들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인식하는지도 알아보았다. 결과, 유럽의 많은 국가 국민들은 노인세대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낮고, 의료보험 제도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조사를 한 적은 없으나 최근 인터넷에서 공공교통 노인 무료승차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의 청장년 세대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세대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신광영, 2013).

한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가 상이한 연령대에게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대와 30~50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가정이 모두 성립하여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는 광범위한 연령집단에 모두 사용가능한 척도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의 공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변인인 노인의 대한 태도, 노인과의 접촉 의도와 상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의 노인차별적 태도에 대한 증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인차별주의를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과 노화에 대한 지식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의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의 추가 설명량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응답자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와 상관도 보았다.

먼저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졌다. 이는 노인세대를 위협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2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는데 2가지 방식으로 측정한 태도 점수가 모두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점수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하여 긍정-부정의 연속선상에서 내리는 전반적인 평가이다(한정란, 2003). 노인세대가 정치적 측면에서, 가치관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위협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노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외집단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외집단에 대해 더 부정적 태도를 가진다는(Stephan 등, 2000) 기존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은 노인과의 접촉 의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원 이양을 하지 않거나 한정된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노인과의 접촉을 꺼리며(North 등, 2013), 긍정적 자기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긍정적 자기개념 유지에 방해가 되는 정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Wilson & Ross, 200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치적, 가치관,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세대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노인과의 대화하거나 만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일치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다른 민족 외집

단에 대한 인식과 외집단 구성원과의 접촉 의도와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아울러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이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질과 노화에 대한 지식을 통제하고도 추가적으로 노인차별주의를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많은 연구에서 특정 집단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강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인지, 감정, 행동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차별적 태도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증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지나 행동을 예측해줄 뿐만 아니라 감정적 측면까지 예측해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의 타당도 확인에서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준거변인의 평균 값이다. 한 예로 증분타당도 확인을 위해 측정한 노인차별적 태도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19점이었는데 이 점수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노인차별적 태도보다는 노인에 대한 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은 노인차별적 태도를 예측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덜 긍정적인 태도를 예측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노인차별적 태도의 점수는 낮은 점수의 분포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North 등, 2013; Rupp 등, 2005),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점수 분포 상에서의 개인차가 실질적인 노인차별에서의 개인 차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Mueller-Johnson, Toglia, Sweeney와 Ceci(2007)는 사람들의 형사 사건 증인에 대한 신뢰가 증인의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노인차별적 태도가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에 비해 나이 든 증인을 젊은 증인보다 정확성, 객관성, 기억력이 낮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노인차별적 태도가 강한 집단의 노인차별 태도 점수는 4점 만점에 2.06~2.31점 범위의 비교적 낮은 점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절대적 의미에서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점수 분포 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노인차별적 태도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는 노인에 대한 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닌 노인차별적 태도를 예측해주는 유용하고 타당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바람직성 간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두 변인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였다. Stephan 등(2004)은 사람들이 다양한 외집단에게 위협을 인식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인종, 국가, 성별에게 가지는 위협 인식을 측정하기는 하였으나 노인세대에게 가지는 위협 인식을 측정할 적은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청장년 세대가 노인세대에게 가지는 위협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외집단에게 가지는 위협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지는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여 청장년 세대가 노인세대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였다. 둘째, 청장년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관계적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노

인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노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사람들이 노인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개인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던 반면 자신의 연령 집단과 노인 집단의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을 때 노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North 등,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인 관계적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청장년 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청장년 세대는 정치적 측면, 가치관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세대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셋째, 넓은 범위의 연령대에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이 3요인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연구참여자가 포함된 두 개 표본을 대상으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는데 두 표본에서 모두 3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구조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20대와 30대~50대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한 다집단 동등성 검증결과로부터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가 상이한 연령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노인차별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세대가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노인차별은 성차별, 인종차별과 함께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3대 차별 중 하나로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서 모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김지연 등, 2012; 남석인, 2008; Nelson, 2005; Rupp 등, 2005). 따라서 노인차별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차별적 태도의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수준에서 청장년 세대가 노인세대에게 가지는 위협 인식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간 통합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노인인구가 많아질수록

청장년 세대와 노인세대는 한정된 복지자원, 정치적 영향력, 가치관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장년 세대는 노인세대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연합뉴스 2014. 9. 9).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세대가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위협 인식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세대간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간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의 이해를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참여자를 표집하고, 이들의 데이터로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으나 타당도 확인은 20대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척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성과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Paulhus (1998)가 제안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두 요인 중 자기-기만 고양 요인과의 상관만을 확인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노인세대 위협 인식 척도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자기-기만 고양 요인 뿐만 아니라 일시적 동기나 상황에 의해 타인에게 자신을 바람직하게 보이려 하는 경향성인 인상 관리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가 인상 관리 요인과의 무관한 척도인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비록 본 연구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청장년 세대가 모두 세 차원에서 노인세대를 위협적

로 인식한다는 점을 밝혔으나 세대에 따라 각 차원에서 위협을 인식하는 정도나 위협을 인식하게 되는 원인이 다를 수 있다. 한 예로 청년세대가 장년세대보다 탈권위주의 성향이 더 강하므로 노인세대에게 갖는 가치관 위협 인식 역시 청년세대가 장년세대보다 강할 수 있다. 반면 장년세대가 청년세대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주 부양세대이므로 노인세대에게 갖는 경제적 위협 인식 역시 장년세대가 청년세대보다 강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각 차원에서의 위협 인식 정도가 세대에 따라 다른지, 다르다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척도 개발 시 선행연구 결과나 관련 서적과 같이 문헌만을 참고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문헌이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의 종류나 내용을 추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아니지만 문헌만으로는 실제로 실생활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세대에게 어떤 위협을 인식하며, 왜 그러한 위협을 인식하게 되었는지 아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차별적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청장년 세대의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일 수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청장년 세대가 노인세대에게 가지는 위협 인식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세대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나 사회 현상은 청장년 세대만 노인세대에게 위협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세대 역시 청장년 세대에게 위협을 인식하며, 청년이 장년에게 그리고 장년이 청년에게도 위협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예로 만약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에 대하여 위협적으로 인식한다면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뿐 아니라, 반대로 노인세대 역시 젊은 세대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정치 성향이 50대를 기준으로 나뉘기 때

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위협 인식은 청장년 세대와 노인세대 간에 나타나는 것보다 20대~40대와 50대 이상의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경향신문, 2012. 12. 20). 위협 인식은 부정적, 차별적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세대 간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세대 간에 가지고 있는 위협 인식의 내용과 수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관심을 확장하여 청장년의 노인세대에 대한 위협 인식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인식의 내용과 수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3. 2. 15). 18대 대선 50대 투표율 82% 최고... 女참여 높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30215153904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302151539041).에서 자료 얻음.
- 경향신문 (2012. 12. 20). 50대 투표율 89.9%... 박근혜 당선자, 2040서는 졌는데... 어떻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21220220851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10&artid=201212202208515).에서 자료 얻음.
- 김민희 (2013). 포스터 발표: 4분과 사회 및 성격; 대학생의 노인 접촉 경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013(1), 332-333.
- 김옥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 21-35.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89-106.
- 남석인 (2008).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8, 1297-1315.
- 박경숙, 서이중, 김수중, 류연미, 이상직, 이주영 (2013). 세대 갈등의 소용돌이: 가족 경제 문화 정치적 매커니즘. 다산출판사.
- 박재간, 이인수 (2001). 우리나라 노인의 정치참여의 과제-사회활동에 관한 국내의 고찰과 미래를 위한 제안.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73-197.
- 박재홍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한국인구학, 33(3), 75-99.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담.
- 서울경제 (2014. 3. 19). 실버세대 눈치보기.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3/e2014031918100171130.htm>.에서 자료 얻음.
- 서울경제 (2014. 8. 7). [이노베이션 코리아 2014] 세대갈등 ‘공존의 길’은 있다. <2>돌고도는 연금폭탄.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08/e2014080717202270070.htm>.에서 자료 얻음.
- 신광영 (2013, 2월호). 세대갈등, 대선 이후 사회갈등의 큰 축으로 급부상. 나라경제, 10-11.
- 신창환 (2009). 연구논문: 복지국가의 세대간 형평성 담론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함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2), 563-578.
- 신홍임 (2013). 돈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가? 한국 및 독일 대학생 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2), 1-16.
- 신홍임, 김민식 (2011). 노인 고정관념의 억제와 오기억: 목표점화(goal priming) 및 망각지시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7-34.
- 연합뉴스 (2014. 9. 9). 빠르게 늙는 한국... 고령인구 증가속도 OECD 최고. <http://news.naver.com>.

- 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109818&isYeonhapFlash=Y.에서 자료 얻음
- 윤진, 조석미 (1982).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의 구성연구: 한 교육측정적 접근. *한국노년학*, 2, 5-15.
- 이순목 (1995). 요인분석I. 서울: 학지사.
- 정보라 (2005).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송, 이순목, 이영선, 이민수 (2011). MMPI 단축형 우울척도 개발: 문항기반 요인분석의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 811-830.
- 한소영, 신희천 (2007).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다집단 요인분석과 잠재평균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47-465.
- 한정란 (2000).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연세교육연구*, 13, 191-206.
- 한정란 (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23, 181-194.
- 한정란, 김귀자 (2003). 부모의 노인 및 조부모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19, 61-82.
- Abrams, D., Russell, P. S., Vauclair, M., & Swift, H. S. (2011). Ageism in Europe: Finding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London: Age UK. <http://kar.kent.ac.uk/29733/>.에서 자료 얻음.
- Aday, R., Sims, C., & Evans, E. (1991).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partner.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0, 372-384.
- Berrenberg, J., Finlay, K., Stephan, W., & Stephan, C. (2002). Prejudice toward people with cancer and AIDS: Applying the integrated threat model. *Journal of Applied Biobehavioral Research*, 7, 85-76.
- Binstock, R. (2010). From compassionate ageism to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Gerontologist*, 50(5), 574-585.
- Bousfield, C., & Hutchison, P. (2010). Contact, anxiety, and young people'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s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36(6), 451-466.
- Bowling, A. (2007). Honour your father and mother: Ageism in medicine.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57, 347-348.
- Browne, M.,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 Long, J.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ry, L., Chasteen, A., & Cadieux, J. (2013). Does age group identification differentially influence younger and older adults' intergenerational percep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7(4), 331-346.
- Cottrell, C., & Neuberg, S. (2005). Different emotional reactions to different groups: A sociofunctional threat-based approach to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5), 770-789.
- Cuddy, A., Norton, M., & Fiske, S. (2005). This old stereotype: The pervasiveness and persistence of the elderly stereotype.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67-285.
- Fabrigar, L., Wegener, D., MacCallum, R., & Strahan, E.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299.
- Farmer, C., Aman, M. (2009).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scale of hostility and aggression: reactive/proactive(C-SHARP).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0, 1155-1167.
- Fraboni, M., Saltstone, R., & Hughes, S. (1990).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 9, 56-60.

- Gaunt, R. (2011). Effects of intergroup conflict and social contact on prejudice: The mediating role of stereotypes and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6), 1340-1355.
- Hale-Smith, A., Park, C., & Edmondson, D. (2012). Measuring beliefs about suffering: Development of the Views of Suffering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24*(4), 855.
- Hummert, M. (1990). Multiple stereotypes of elderly and young adults: a comparison of structure and evaluations. *Psychology and Aging, 5*(2), 182-193.
- Hutchison, P., Fox, E., Laas, A., Matharu, J., & Urzi, S. (2010). Anxiety, outcome expectancies, and young people's willingness to engage in contact with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36*, 1008-1021.
- Johnson, J., Ashburn-Nardo, L., Vincent Spicer, C., & Dovidio, J. (2008). The role of Blacks' discriminatory expectations in their prosocial orientations toward whites and black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6), 1498-1505.
- Kite, M., & Johnson, B. (1988). Attitudes toward older and younger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3*(3), 233-244.
- Kite, M., Stockdale, G., Whitley, B., & Johnson, B. (2005). Attitudes Toward Younger and Older Adults: An Updated Meta Analytic Re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41-266.
- Li, A., & Bagger, J. (2007).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BIDR): A reliability generalization stud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7*(3), 525-544.
- Maddux, W., Galinsky, A., Cuddy, A., & Polifroni, M. (2008). When being a model minority is good... and bad: Realistic threat explains negativity toward Asian Americ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 74-89.
- Mueller-Johnson, K., Togli, M., Sweeny, C., & Ceci, S. (2007). The perceived credibility older adults as witness and its relation to ageism.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5*, 355-375.
- Nelson, T.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 207-221.
- Nelson, T. (2002). *The psychology of prejudice*. Boston: Allyn and Bacon.
- North, M., & Fiske, S. (2012). An inconvenienced youth? Ageism and its potential intergenerational roots. *Psychological Bulletin, 26*, 1-16.
- North, M., & Fiske, S. (2013). A prescriptive intergenerational-tension ageism scale: Succession, identity, and consumption (SIC). *Psychological Assessment, 25*(3), 706.
- Palmore, E. (1988). *The facts on aging quiz*. NY: Springer Publishing Co.
- Palmore, E. (2001). The ageisms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 572-575.
- Paulhus, D. (1998). *Paulhus Deception Scales(PDS):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7: User's manual*. North Tonawanda, New York: Multi-Health systems.
- Pereira, C., Vala, J., & Costa-Lopes, R. (2010). From prejudice to discrimination: The legitimizing role of perceived threat in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7), 1231-1250.
- Peterson, P. (2002).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강연회 역). 서울: 에코리브르. (원전은 2000에 출판).
- Pettigrew, T., & Tropp, L.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751-783.
- Renfro, C., Duran, A., Stephan, W., & Clason, D. (2006). The role of threat in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and its beneficiar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 41-74.
- Riek, B., Mania, E., & Gaertner, S. (2006). Intergroup threat and outgroup attitudes: A

-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336-353.
- Rupp, D., Vodanovich, S., Credé M. (2005).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ageism: Construct validity and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 335-362.
- Ryan, E., Jin, Y., Anas, A., & Luh, J. (2004). Communication beliefs about youth and old age in Asia and Canad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9(4), 343-360.
- Saarikallio, S.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rief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B-MMR). *Music Percep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30(1), 97-105.
- Sanders, G., Montgomery, J., Pittman, J., & Jr.,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 59-70.
- Stephan, W., & Renfro, C. (2004). The role of threat in intergroup relations. Mackie, D. & Smith, E. (Eds.),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pp. 191-207). NY: Psychology Press.
- Stephan, C., Stephan, W., Demitakis, K., Yamada, A., & Clason, D. (2000). Women's attitudes toward men: An integrated threat theory approac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1), 63-73.
- Stephan, W., & Stephan, C. (2000). An 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23-45.
- Stephan, W., Ybarra, O., & Morrison, K. (2009). Intergroup threat theory. Nelson, T. (Ed.),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pp.43-59). NY: Psychology Press.
- Wong, Y., Kim, B., Nguyen, C., Cheng, J., & Saw, A. (2014). The interpersonal shame inventory for Asian Americans: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1), 119.
- Wilson, A., & Ross, M. (2001). From chump to champ: People's appraisals of their earlier and present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4), 572-584.
- Yzerbyt, V., & Demoulin, S. (2010). Intergroup relations. In Fiske, S., Gilbert, D., & Lindzey, G.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Vol. 2, pp.1024-1083). Hoboken, NJ: Wiley

1 차원고접수 : 2014. 09. 12.

수정원고접수 : 2014. 11. 05.

최종게재결정 : 2014. 11. 05.

## Development of the Perceived Threat to Elderly Group Scale(PTES)

**Ji-Yeon Kim**

**Kyung Hwan Min**

**Min-He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is research reports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rceived Threat to Elderly Group Scale(PTES), a measure of the perceived threat to the elderly group for young and middle-aged adults. Based on Stephan's intergroup threat theory, this study assumed that young and middle-aged people would perceive a realistic threat and a symbolic threat to elderly group. To fill the need for a measure of young and middle-aged adults' perceived threat to the elderly group, we developed PTES.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wo samples. Analyses identified a model with three factors: perceived political threat, perceived value threat, and perceived economic threat. Multi-group factor analysis demonstrated that PTES could be used across different age groups. Internal consistency for PTES subscale scores were good. Testing the association between PTES and the related constructs demonstrated that the PTES has good concurrent and incremental validity, and is almost unaffected by social desirabil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PTES is a reliable and valid scale that measure the extent which to young and middle-aged adults' perceived threat to elderly group.

*Key words* : *perceived threat to elderly group, realistic perceived threat, symbolic perceived threat, ageism, integrated threat theory, intergroup threat theory*